

전국한우협회,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안) 심의의결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3월 9일 이사회를 열어 2016년 수입·지출 결산(안)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6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은 수입이 18억 24백여만원이며 지출은 16억 56백여만원이다. 2017년도 수입 예산은 18억 77백여만원이며 사업계획 4개 과제는 한우가격 안정과 생산기반 구축, 소비자 지향적 생산과 유통확대, 협회 정체성 확립과 조직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민족 산업 등이다.

특히, 2017년에는 전국한우협회에서 주관 단체로 2017 국제 축산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며 이때 협회 창립 기념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석 중인 부회장 1인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 박병남, 박영철, 홍재경 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했던 회비 인상안에 대해서는 재논의 결과 회원수를 향후 5년 동안 3만명을 달성하기로 하고 회비 인상을 철회하기로 했다.

2030 취업준비생 응원 이벤트
한우자조금, 한우 스테이크뎀밥 나눔



한우자조금은 2030세대 취업준비생과 공무원 수험생들을 응원하고자 총 3회에 걸쳐 한우 스테이크 뎀밥 나눔 행사인 <한우가 청춘을 응원하러 달려갑니다>를 진행했다.

또한, 5월엔 안동, 6월엔 노량진에 찾아갈 예정이다.

한우자조금은 취업준비, 각종 시험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2030세대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많은 취준생들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먹고 치열하게 살고 있다.”며, “한끼지만,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한우와 신선한 채소가 곁들여진 한우 스테이크 뎀밥을 먹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규 한돈협회장, 군장병 희망특강 육군 제9보병사단 방문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삼겹살데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육군 제9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 회장은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한돈 삼겹살을 전달하는 한편 9사단 백마 대강당에서 군 장병 25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돼지 한돈이 백마 부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란 주제로 군 장병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바로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이라며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한돈산업이 쌀을 제치고 국내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하며 미래 농업의 핵심역량이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여러분이 최전선에서 국방을 지키듯 우리 한돈농가들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무엇보다 젊은 인재들이 국산돼지고기 한돈과 한돈산업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돈자조금, 삼겹살데이 기념 대한민국 국민응원 할인행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삼겹살데이(3.3)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온 국민이 삼겹살로 하나 되는 것을 기원하고 국민들을 응원하며, 축산물 소비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돈자조금은 3월 1일부터 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삼겹살데이를 기념해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정상가 100g당 2,150원인 한돈 삼겹살을 1,380원에 판매하고, NH농협카드로 결제 시 최대 49% 할인된 1,090원에 판매했다.

온라인 할인 이벤트도 마련돼 기존 한돈 온라인 공식쇼핑몰 ‘드림한돈닷컴’을 ‘한돈몰’로 새롭게 오픈, 오픈 기념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돈몰은 우리돼지 한돈을 연중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돈 공식 온라인 쇼핑몰로 도드람한돈, 돈마루, 얼룩도야지 등 유명 육가공 업체가 직접해 운영되며 삼겹살, 목심 등 신선육을 비롯해 육포,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한돈닷컴’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열렸다.

**낙농육우협회, 입법청원서 제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개선하라**

낙농가와 업계 관계자 9,740명이 3월 14일 국회에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비롯한 낙농가 등 9,740명의 청원으로 이뤄진 이번 입법청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 발전위원회를 설치, 학교우유급식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하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지원단가를 최저가입찰예정가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는 시행 초기부터 정부가 부당염매와 독과점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실제로 지역간 공급 편이 차이로 인해 공급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등 도농간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물론 과당경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납품 중단사태까지 야기, 시행 1년만에 파행을 맞을 정도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학교우유급식의 본래 목적인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1년 만에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 경영대상 수상**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비영리 법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우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전달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와 언론보도 등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산 흰우유의 우수한 영양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캠페인과 여러 홍보활동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우유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 경영대상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해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한 상이며, 우수·유망한 기업의 특색 있는 기업문화 경쟁력을 평가하고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수급안정대책 발표 가격동결, 할인판매…소비자부담 경감

최근 육계 산지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AI 발생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하여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자 육계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계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육계 산지가격이 급등하자 닭고기 소비자 가격 인상을 우려한 정부가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협조를 요청해오며 따라 분회는 AI 발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한 보답과 소비자 물가 불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내산 닭고기의 자급률 하락을 방지하고,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의 충격을 완화하고 생산비 수준 이하로 산지가격 하락 시 정부수매를 요구키로 하고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수입을 통한 해결방안이 민능이 아님을 강조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닭고기 수입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AI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및 여찰지역 내 병아리 입식 제한으로 닭 사육 마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급에 차질이 생긴 만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시책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면서 “닭고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내산 닭고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AI 피해 산란계농가 지원사업 중단 철회 촉구

AI 피해 산란계농가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축산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3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전국 산란계농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AI 산란계 이동제한 해제, AI 발생농가 축산지원사업 배제 철회, AI 살처분 관련비용 국가지원, AI 심진아웃제 철회 등을 비로 수용하고 '계란 수입비 지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전국 산란계농가들은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산란계농장 반납운동, 대규모 집회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통계지표 보완 계란수급예측시스템 홈페이지 개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산란계 농장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계란수급예측시스템의 홈페이지(<http://egg.poultry.or.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매년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나 수급정보 등 관련 통계지표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매년 수급불안정과 계란가격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산란종계 입식현황, 산란계 병아리 정보, 산란(종)계 도축정보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란종계 입식기준으로 병아리 생산잠재력, 계란 생산량 예측자료도 열람 가능하다.